

문재인 “분당론 실체 없다” 박주선 “친노 패권주의와 동거 못해”

잠잠하던 새정치 또 내홍

한동안 잠잠했던 야권 신당·분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소속 전정배 의원이 이르면 내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다.

비주류 핵심인사인 박 의원은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친노 패권주의와 혁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친노 패권주의가 정산되지 않는 한 당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박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가 정산되지 않는 한 당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박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가 정산되지 않는 한 당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비주류의 대표격인 주승용 최고위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 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위기가 커지자 문 대표는 오는 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예산협의차 광주·전북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며 민심을 다독이기로 했다. 호남 방면에 앞서 2일

비주류 혁신안 불만 표출

박주선 탈당 강력 시사

전정배 신당 내주 공식화

까지는 호남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미리 호남 민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문 대표는 “분당론에는 실체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는 전남 기초의원 연수간담회에서 “일부 분파적인 행동들 때문에 분당이란 말이 유행을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문 대표의 노력과는 별개로 당분간 신당·분당론이 계속 번져나가 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위원회의 공천률 쇠퇴한 중앙위 의결이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혁신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곧바로 원심력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비주류를 중심으로 혁신안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김한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많은 애를 쓰긴 했지만 그 성과가 국민의 희망을 자아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더 큰 변화와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도 “혁신안이 공천만 언급할 뿐 지지혁신을 언급하지 않으니 국민이 관심이 없다. 최고위원제 폐지 등 당 체제를 바꾸는 데에만 포인트를 뒀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참석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현안 사업 국고 확보 국회가 나서 달라”

윤장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지사 지역출신 의원 20명 간담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1일 국회 인근에서 공동으로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한 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사와 윤 시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사업의 2016년 국고예산 반영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동으로 펼치는

市 37진·道 고속철 2단계 등 국회 심의서 반영·증액 요청

2016년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회차원에서 예산추가 및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28억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36억원) ▲광·전자 융합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100억원)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90억원) ▲광

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1000억원) 등 총 37건이다.

전남도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 건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등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추가 반영 및 증액을 요청했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여수~남해 간 도로(동서해저터널) 건설, 백산산업 글로벌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등도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

에서 예산을 반영해줄 것도 건의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국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칭 의무를 이행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 동향에 대해 배석한 시·도 간부들에게 질의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자영업

매년 5만6000개 창업 4만8000개 문 닫는다

지난 10년간 48만여개 폐업

지난 10년간 광주·전남에선 매년 평균 5만6000여개의 자영업이 창업하고, 약 4만8000여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평균 100만개 가까운 자영업이 창업하고, 약 80만개가 문을 닫았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사이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자영업) 창업은 949

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의 생존율이 16.4%로, 창업 후 6개 중 1개꼴로만 살아남는 셈이라고 심 의원은 분석했다. 2013년의 경우 92만6558개가 문을 열었으며, 같은 해 80만5328개가 문을 닫았다.

광주지역에서는 이 기간동안 창업이 27만5077개, 폐업은 23만6620개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2만3600여개가 문을 닫는 셈이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각각 2만5290개, 2만4833개로 가장 많은 폐업을 기록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 기간중 28만7860개가 문을 열었으며, 24만6054개가 문을 닫았다. 이 기간 중 2011년과 2012년 폐업 수가 각각 2만6679개, 2만6836개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창업과 폐업 모두 음식점이 가장 많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 혁신도시 중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율이 부산·전북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율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나주빛가람 혁신도시가 88%로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부산혁신도시에는 이전 계획이 잡힌 공공기관 13곳 가운데 12곳, 전북혁신도시에는 계획된 12곳 가운데 11곳이 이전을 마쳤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16곳 중 14곳이 이전했으며, 인터넷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곳은 아직 이전하지 않았다. 제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율은 25%로 가장 낮았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지역 인제 채용률도 전국 평균(11.9%)보다 높은 14.4%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율 88%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세번째 높아

계획 대비 거주인구 비율은 17%로 꼴찌서 두번째

(전체 채용인원 924명 중 133명)로, 부산, 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27만1000명이 사는 것으로 계획된 전국 혁신도시에는 현재 7만8973명이 거주해 계획 대비 실제 인구의 비율이 29%에 머물렀다. 실제 인구 비율 역시 부산혁신도시가 가장 높아 애초 계획한 7000명을 넘어선 7819명이 살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112%였다. 부산혁신도

시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다 직원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등 부산시의 파격 지원으로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나주빛가람 혁신도시의 거주 비율은 계획인구 5만명 중 현재 83%만 이주해 17%에 그쳤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평균인 29%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도심에서 뚝 떨어진 충북혁신도시

(14%)에 이어 가장 낮았다. 나주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이전 초반 신규 아파트의 수돗물에서 흙이 섞여나오는 가 하면 인근 축사에서 내뿜는 악취, 높은 아파트 분양가 등으로 이주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 비율도 부산혁신도시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 평균(24.9%)보다 낮은 23.7%였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세수 증대에는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빛가람 혁신도시 소재지인 나주시의 경우 지난 2012년 47억2500만원에 불과하던 지방세 수입이 2014년 기준 356억4000만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로동구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